

차 경 욱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비교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정 다 은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비교

차 경 욱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정 다 은

# 인 준 서

정다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논문개요

우리나라 가계의 62.8%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부채 총액은 5,205만원이다(통계청, 2012). 가계부채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둔화와 맞물려 연체로 이어질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더 이상 가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992조 원이고 특히, 저소득 가계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한국은행, 2012). 이들의 상당수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재무비율과 지표를 사용하여 가계의 부채부담과 상환능력을 측정, 평가해왔다. 가계자산과 부채의 규모, 구성비 등을 살펴보는 것은 가계재무상태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가계의 안정성·성장성 등 복합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의 재무능력에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인 장기부채부담 지표는 저량의 측면에서 가계 자산상태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낮더라도 총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실질적인 부채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융자산대비 총부채비율로 측정하는 중기 부채 부담 지표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부채상환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가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유용한 지표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기부채부담수준을 부채미보유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로 나누어 집단을 구분한 후,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고, 자산 유형별 보유액과 구성비를 비교 분석하며, 재무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를 비교하였다. 가계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를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한 30대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과 카이제곱 검증, t-검증, 분산분석으로 391명의 자료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가 대졸 이상, 전문관리직,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 자가를 보유한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부채 보유액은 가구주가 30대, 거주지역이 광역시,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 주택관련부채가 없는 가계의 부채 보유액이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낙관주의성향이 높은 집단의 유동자산, 부동산관련자산, 총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위험수용성향이 높은 집단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둘째,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사용하여 총 391명 조사대상 가계의 중기부채부담수준을 구분한 결과, 부채미보유 가계 136명(34.8%),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123명(31.5%),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81명(20.7%),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초과) 51명(13.0%)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주가 여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부채미보유 가계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가계는 배우자 있는 가계보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및 총부채 보유액이 모두 유의하게 적었고, 가구주가 여성

인 가계가 남성인 가계 보다 유의하게 적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가계는 부채가 없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이지만, 금융자산이나 총자산 규모 면에서 볼 때 성장성 측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넷째,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의 위험수용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위험선호성향이 높은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다른 집단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고려하면, 부채과부담 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컨대 투자목적의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안전금융자산은 수시입출금식예금,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및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부채과부담(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 가계의 보유액이 가장 적었고, 중기부채부담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보유액은 감소했다. 위험자산 보유액은 부채과부담 가계가 다른 집단 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이는 부채과부담 가계가 위험자산보다는 투자를 위한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집단에 비해 부동산관련 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는 중기부채과부담의 원인이 부동산 마련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금융기관 자금대출 규모는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초과)가 가장 컸고,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의 순이었는데,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채과부담 가계는 부동산자산과 총자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력과 신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부채과부담 가계는 안전금융자산의 비중이 유의하게 낮고,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부채과부담 가계의 위험수용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덟째, 부채과부담 가계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76%로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며 총부채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모든 가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의 총부채 대비 실물자산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부채보유액이 매우 낮은 반면, 부동산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홉째, 총자산 대비 금융투자자산 비율은 부채미보유 가계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10% 이하로 성장성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모든 가계가 65% 이상으로 적정수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특히 부채과부담 가계가 매우 높았는데, 실물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통해 유동성과 성장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의 경우, 부채과부담 가계가 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 가계의 성장성 뿐 아니라 비상자금지표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살펴보고, 가계의 부채부담과 부채상환능력의 적절성을 파악하며 이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다각도에서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는 것은 재무설계와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벤치마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1. 자산배분 관련 이론	5
1) 포트폴리오이론	5
2) 프록시이론	5
2.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 보유 특성	7
1) 금융자산 보유 특성	7
2) 부채 보유 특성	8
3.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	9
1) 부채부담지표	10
2) 자산구성관련 지표	13
4. 자산과 부채 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
1) 사회경제적 특성	14
2) 심리적 특성	16

III. 연구방법 .....	19
1. 연구문제 .....	19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	20
3. 측정도구의 구성 및 분석방법 .....	21
IV. 연구결과 및 분석 .....	28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8
1) 사회경제적 특성 .....	28
2) 심리적 특성 .....	30
3) 자산·부채 보유 특성 .....	30
2. 사회 경제적, 심리적 특성에 따른 자산과 부채 보유액 비교 .....	34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비교 .....	34
2)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교 .....	38
3.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 비교 .....	4
1)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	4
2)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	4
3)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비교 .....	4
4.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비교 .....	4
1)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	4
2)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구성비 비교 .....	4
3) 주요 재무비율 비교 .....	53

V. 결론 및 제언 .....	57
1. 요약 및 결론 .....	57
2. 제언 .....	60

참고문헌

설문지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부채부담지표 준거기준 .....	2
<표 2> 자산구성 관련 지표 준거기준 .....	4
<표 3> 현상유지편향 측정 문항 .....	2
<표 4> 낙관주의성향 측정 문항 .....	3
<표 5> 위험수용성향 측정 문항 .....	2
<표 6> 자산·부채의 구분 .....	0
<표 7>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9
<표 8>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	0
<표 9> 조사대상자의 금융자산 유형별 보유율 및 보유액 현황 .....	33
<표 1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	73
<표 11> 심리적 특성에 따른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	93
<표 12>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	14
<표 13>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	34
<표 14>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비교 .....	44
<표 15>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유형별 자산의 보유액 비교 .....	48
<표 16>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구성비 비교 .....	25
<표 17>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비교 .....	65

## 그림 목 차

<그림 1>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자산유형별 구성비 비교 .....	15
--	----

# I. 서론

## 1. 문제제기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재무요구와 가용한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계는 소득과 소비간의 불균형을 경험하게 된다. 저축과 대출은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전 생애에 걸쳐 가계의 재무자원을 재분배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는 수단이다. 현재의 소비를 유보하고 미래의 구매력향상을 꾀하는 저축, 또는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대출을 통해 가계가 원하는 생활표준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대출은 일생에 걸쳐 가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수단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대출을 통한 현재 구매력의 증가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해 생활표준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가계소득의 감소나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위험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 가능케 한다(Pollin, 1988).

그러나 가계 대출이 재무관리 수단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과 자산에 비추어 그 규모가 적절해야한다. 부채의 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중한 부채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를 근거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수익률이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단기적으로는 부채상환부담이 증가되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저축 부진이 생산자본 축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한국은행, 2012).

2011년 가계금융조사(통계청, 2012)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부채총액은 5,205만원이고, 전체가구의 62.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부채총액은 8,289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의 자금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99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계의 경우 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부채감내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부채를 보유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과다차입에 의존하여 주택을 마련한 가계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체감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다(한국은행, 2012).

한편, 선행연구들(이은미, 2002; 성영애, 2000)은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율과 부채보유액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소득 4분위와 5분위 계층의 평균 부채액이 전체 가계의 평균 부채액의 1.4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12). 또한 선행연구(채은석·성영애, 2000, 김미형, 2008)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이 부채를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채가계의 상당수가 충분한 부채상환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가계자산과 부채의 규모, 구성비 등을 살펴보는 것은 가계채무상태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가계의 안정성, 성장성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재무비율은 현금흐름표, 자산부채상태표 등 재무제표 상에 표시된 두 가지 이상 변수의 관계를 수치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능력 평가에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부채부담과 관련된 재무비율은 일반적으로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어 적용한다. 월평균가계소득 대비 월평균부채상환액 비율로 평가하는 단기부채부담지표는 유량의 측면에서 가계의 부채부담을 평가하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인 장기

부채부담지표는 저량의 측면에서 가계자산상태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총 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낮더라도 총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실질적인 부채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융자산대비 총부채비율로 측정하는 중기부채부담지표는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부채상환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용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가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가계의 중기부채부담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재무적 안정성 뿐 아니라, 성장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도한 부채부담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채를 상환할 만큼의 금융자산을 갖지 못한 가계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총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총자산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유동성이 저해되어 부채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부동산투자를 위해 부채를 보유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가계의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 성장성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대비 총부채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의 중기부채부담 수준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 및 가계자산과 부채 보유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계의 금융자산과 총부채 현황을 파악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의 준거기준을 근거로 중기부채 과부담 가계와 적정 가계를 구분하고, 비율 값에 따라 적정 가계를 다시 세분화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구분된 집단별로 사회경제학적,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고, 자산 유형별 보유액과 구성비를 비교 분석하며, 자산, 부채와 관련된 주요 재무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계의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 보유 특성을 분석하고, 각 집단별 가계의 재무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가계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중기부채과부담 가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재무 건전성 증진을 위해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계의 부채부담과 부채상환능력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다각도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재무설계와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벤치마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자산배분 관련 이론

#### 1) 포트폴리오이론

포트폴리오 이론은 Markowitz(1952)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투자자산과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이론으로 이용되어 왔다. Markowitz의 포트폴리오 선택이론에 따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증가하면 개별자산의 위험은 줄어들어 결국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이 낮아지고, 포트폴리오에 속한 자산 간의 공분산 크기로 위험이 결정된다. 따라서 선택 가능한 모든 투자대안 중에서 최적의 위험-수익률 조합을 가진 투자대안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특정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보다 안전한 투자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 2) 프로스펙트 이론

프로스펙트 이론은 기대효용이론의 대체 이론으로 고안된 것으로 1979년 Kahneman과 Tversky에 의해 발표되었다. 프로스펙트 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의 효용함수에 대응하는 가치함수(value function)와 확률의 중요성과 관계있는 확률가중함수(Probability weighting function)로 구성된다(도모노노리오, 2007).

프로스펙트 이론의 가치함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모든 이익과 손실의 중심에는 준거점(reference point)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에 대해서도 준거점에 따라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실이 되기도 한다.

둘째, 가치함수는 S자형의 곡선으로 이루어져있다. 준거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급하며, 멀수록 완만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라도 준거점에 근접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며, 먼 가치는 작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동일한 크기의 가치라도 이익 영역의 가치에 비해 손실 영역의 가치가 더 크다.

따라서 소득을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융자산으로 판단하고 얻는 심리적 만족이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손실로 판단하고 얻는 심리적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한 소비자를 이해하는 근거로 적합하다.

확률가중함수는 확률이 0과 1일 때는 그 기울기가 가파르지만 중간값 정도의 확률에서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즉, 발생확률이 낮은 상황은 과대평가되고 발생확률이 높은 상황은 과소평가 된다. 사람들은 보통 비행기 사고, 천재지변 등과 같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상황은 실제보다 높게 예상하는 반면 교통사고, 암 등 발생확률이 높은 상황은 실제보다 낮게 예상한다. 따라서 낮은 확률을 과대평가하여 이익에 대한 위험을 추구하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부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확률은 낮게 판단하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확률은 높게 예상하는 금융소비자의 모습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 보유 특성

### 1) 금융자산 보유 특성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실물자산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월등히 높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한 남상호·권순현(2008)의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순자산이 거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자산과 기타 자산은 점유비중이 낮으며, 순자산의 60% 이상을 거주주택이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구성을 살펴보면, 예금 및 보험 등 안전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경목(2002)은 금융자산구성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주식시장의 참여도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금융경제연구원(200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중 주식보유 비중(5%)은 매우 낮은 반면 예금 및 보험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금융자산이 주요 재산증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유경원(2004)은 가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자산구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금융자산을 선택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소득 위험이 높은 가계일수록 안전자산 보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위험자산인 주식의 보유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박주영·최현자(1999)가 한국가구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를 Tobit분석한 결과 안전금융자산 비중의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중간계층에 비해 저자산계층의 안전금융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자산계층의 안전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가가 없는 가계의 안전금융자산 비중이 더 높으며 모든 조

건이 동일할 때 중간계층에 비해 저자산계층의 위험금융자산 비중은 차이가 없으나 고자산계층의 위험금융자산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은·정순희·여윤경(2005)은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자산의 크기별로 각 가계의 금융자산이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저자산 계층에서는 안전한 저축형 투자대안에, 고자산 계층에서는 위험한 투자대안에 보다 더 비중을 많이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형(2008)의 연구에서는 가계자산구성에서 채권이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보유비중이 낮은 반면 현금계정과 같은 안전자산의 보유비중이 높으나, 최근에는 위험자산계정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강민석·최은영(2010)에서도 가계의 금융자산구성이 대부분 은행 예금과 저축성 보험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중 예금의 비중이 84.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저축성 보험이 6.3%, 주식이 5.9% 순으로 나타났다.

## 2) 부채 보유 특성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누증되어온 가계부채는 그 규모가 과도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부분의 은행금융기관이 소비자금융을 확대하면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되어 2003년 신용카드사태와 같은 위험을 겪었다. 무절제한 신용 사용으로 인하여 개인 신용불량자가 330여만명에 이르렀고,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90%까지 급등하였으며,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99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1년 말 912조원에 비해 1.1% 증가하는데 그쳐 동 증가율이 반기단위로는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나 특정부문의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한국은행, 2012).

통계청(2012)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말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전년 2월말보다 12.7% 증가한 5,205만원이었다. 이 중 금융부채가 3,597만원이고 임대보증금이 1,608만원으로, 총부채액에서 각각 69.1%,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은 2,850만원, 신용대출은 625만원으로, 총부채에서 각각 54.8%, 12.0%의 비중을 차지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2.8%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8,289만원이었다.

전승훈과 임병인(2000)의 연구에서는 근로자 가계와 자가 거주자들의 부채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을 보여주었는데, 자가 거주자들이 부채를 활용하여 거주주택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2011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2)에 따르면, 소득 4분위와 5분위 계층의 평균 부채 총액은 11,703만원이고, 이는 전체 부채 평균의 1.4배 수준이었다. 또한 자가 가구의 경우, 거주주택 담보대출(41.2%)을 포함한 담보대출 비중이 62.9%로 높았고, 전세 가구는 임대보증금 비중이 50.8%, 월세기타 가구는 신용대출 비중이 25.7%로 각각 높았다(통계청, 2012).

가계부채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둔화와 맞물려 연체로 이어질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비, 규모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가계재무상태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계의 안정성, 성장성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은 현금흐름표, 자산부채상태표 등 재무제표 상에 표시된 두 가

지 이상 변수의 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index)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능력 평가에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DeVaney, 1993; Garman & Forgue, 1994; Griffith, 1985; Lytton, Garman & Porter, 1991; 안승철·김년희, 2001; 양세정·정지영, 2010; 양정선, 1997;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에서 제시한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 총부채/실물자산, 가계의 투자성향을 평가하는 투자자산/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 가계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유동자산/총자산 등이 있다.

## 1) 부채부담지표

가계가 부채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부담과 부채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가계재무상태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인 부채부담지표는 일반적으로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누어 적용한다.

장기 부채부담 지표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사용하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으로 부채를 청산할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한다. 중기부채부담지표는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을 사용하며, 유동성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추가 대출여부를 판단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총자산이나 금융자산에 대비한 부채액으로서 부채부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금융권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Langrehr, 1989). 은행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여 대출한도를 정한다. 즉 담보가치 대비 대출비율로서 보통 주택의 시가의 일정 비율로 대출한도를 정한다.

단기부채부담지표는 월평균 가계소득 대비 월평균 부채상환액을 사용하는데, 이는 매월 지출하는 부채상환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다른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최현자 외, 2003; 성영애·양세정, 199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부채부담 준거기준은 <표 1>과 같다. 가계재무상태의 평가지표로서 가계재무비율을 최초로 도입한 Griffith(1985)는 월 평균 부채상환액이 가계소득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부채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상, 유동자산에서 기타금융자산을 더한 값의 비중은 20~30% 이상, 연간부채부담액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5% 이상 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연간부채부담액 대비 유동자산에 기타금융자산을 더한 값의 준거기준은 1로 제시했다.

양정선(1997)은 총부채 대비 총자산의 비율은 1미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고, 최윤지·최현자(1998)는 총부채/금융자산의 비율이 10배를 넘어서면 안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현자 외(2003)는 가계소득의 25% 이상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지불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총자산에서 부채가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우영과 김현정(2010)에서는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이 5배 이상인 경우, 총자산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0.7배 이상인 경우를 고부채가구로 정의하였다. 양세정·정지영(2010)은 국내 재무설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가계재무지표값 조사에서 총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은 4-5배를 넘지 않아야하며, 총부채/총자산의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표 1> 부채부담지표 준거기준

채무비율	Griffith (1985)	최윤지, 최현자 (1998)	최현자 외 (2003)	Lytton, Grable, & Klock (2006)	양세정, 정지영 (2010)
총부채상환액 /가계소득	-	-	0.25 이하	-	0.2 이하
총부채 /금융자산	-	-	10 미만	-	4~5배
유동자산 /총부채	0.1 초과	0.1 초과	-	0.1 초과	-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총부채	0.2~0.3 이상	-	-	-	-
유동자산 /연간부채부담액	0.5 이상	-	-	-	-
유동자산+기타금융자산/ 연간부채부담액	1	-	-	-	-
유동자산 /비담보부부채	1.0 이상	-	-	-	-
총부채 /총자산	-	-	0.8 미만	40% 이하	0.5 미만
총부채 /순자산	1.0 미만	1.0 미만	-	-	-
실물자산 /총부채	-	1.0 미만	-	-	-
비담보부부채 /순자산	최대 0.4	-	-	-	-

## 2) 자산구성 관련 지표

자산구성 관련 재무비율 중 총자산 대비 투자자산,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은 투자성향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을 운영하면서 위험은 있으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자산으로 가계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며,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은 유동성 지표로 긴급사태에 대처해야하는 경우에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기자금의 역할도 하여 수익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최현자 외, 2003).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자산구성 관련 재무비율지표 값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DeVaney(1993)에서는 순자산 대비 투자자산의 비중은 0.25이상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양정선(1997)은 순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준거기준을 0.25 이상으로 삼았다. 최윤지·최현자(1998)에서는 순자산 대비 투자자산의 비율은 0.2 이상, 순자산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은 0.25 이상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했다.

최현자 외(2003)에서는 투자자산의 비중이 총자산의 5-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90%를 넘지 않아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양세정·정지영(2010)은 투자자산/총자산의 비율이 20-25%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실물자산은 총자산의 6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표 2> 자산구성 관련 지표 준거기준

재무비율	DeVaney (1993)	양정선 (1997)	최윤지, 최현자 (1998)	최현자 외 (2003)	양세정, 정지영 (2010)
금융자산/총자산	-	-	-	> 0.1	-
투자자산/총자산	-	-	-	0.05~0.1	0.2~0.25
실물자산/총자산	-	-	-	0.9 미만	0.6 미만
투자자산/순자산	0.25 이상	-	0.2 이상	-	-
유동자산/순자산	-	0.25 이상	0.25 이상	-	-

#### 4. 자산과 부채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사회경제적 특성

배미경(2006)은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가계 포트폴리오 구성 및 영향변수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결혼상태, 지역, 가구의 교육수준, 총소득, 주식투자유무는 가계의 안전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결혼상태와 가계의 안전금융자산의 관계에서 기혼의 경우 사별한 가정보다 안전금융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6대 도시와 군부지역의 안전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위험회피적이었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안전금융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안전금융자산에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이것은 소득이 많을수록 안전금융자산의 보유비율도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위험금융자산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거주지역, 자가 보유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 연령은 50대에 비해 40대가 가구주 교육수준은 고졸에 비해 대졸이상인, 거주지역은 서울에 비해 5대 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계가, 그리고 자가가 없는 가계의 경우 금융투자자산이 비중이 더 높았다(박주영·최현자, 1999; 문숙재·양정선, 1996; 배미경 2006).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 가구원수, 거주지역, 소득수준, 취업자 수, 부채에 대한 태도 등이 차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의 자산이나 다른 유형의 부채 등과 같은 재무상태에 따라서도 부채보유나 부채규모가 달라졌다(성영애·양세정, 1995;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전병훈·임병인, 2000; 이은미, 2002; 김학주, 2005; 김경아, 2011).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은 1993년도 한국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하였는데, 개인 및 가계관련 변수에 있어서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주택소유 여부가 부채보유 여부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의 학력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일 때 부채보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주구의 직업이 비정규직과 미취업자에 비해 농림수산업에 종사할 때 부채를 보유할 확률이 낮아 부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무주택의 가구가 부채를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재정관련 변수에 있어서는 금융자산과 근로소득이 유의한 관계를 보였는데 금융자산은 부채보유와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근로소득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저소득층 가계 및 무주택 가계의 경우 부채부담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김학주(2005)는 한국노동패널데이터 1차부터 5차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

득계층에 따른 가계의 부채보유실태를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 부채부담률은 저소득계층으로 갈수록 높은 양상을 보였다. 특히 부채유형별 보유현황에서 고소득층의 금융기관 위주의 공금융 부채의 차입비중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자산증식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부채가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성영애(2010)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부채의 용도별 보유현황 및 용도가 서로 다른 부채의 보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차용행동이 저축행동과 마찬가지로 매우 보편화 된 가계운영수단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용도별 부채규모를 살펴 본 결과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의 규모가 가장 컸고, 각 용도별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임대보증금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숙(2006)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부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들에 관해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06년 3분기까지 분기별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민소득 수준, 자산가격(주택의 매매가격), 주가, 소비자기대지수, 가계대출 금리 등이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 2) 심리적 특성

### (1) 현상유지편향

현상유지편향이란 현재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상태 즉, 현재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심리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동일한 매력도를 갖는 대안들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상황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박세훈·김문용, 2009). 또한 사람들은 기본설정 대안인 현상대안과 또 다른 대안 중, 현상대안을 선호함으로써 예상되는 후회와 책임감을 더 작게 느끼기 때문에 현상유지편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박귀영, 2012에서 재인용).

## (2) 낙관주의성향

Kahneman & Tversky(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을 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것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특히 자신과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 낙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라고 한다(Weinstein, 1980). 낙관성은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것으로써, 미래에 일어날 일이 대체로 긍정적이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성을 말한다(Scheier & Carver, 1992). 이러한 낙관성은 위험이 있는 상황이나 손실 상황에서도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사건 자체가 자신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나 대처를 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Weinstein, 1980).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미래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을 부채 상황에 사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3) 위험수용성향

위험수용성향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불확실한 투자상황에서 기꺼이 감당할 만한 손실의 크기(Grable & Lytton, 1999)로 정의되며 이러한 성향은 개인의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국내연구에서는 정운영·김경자(2004)가 위험

수용성향을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개인 또는 가계가 위험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 즉,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가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위험수용성향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에 따라 위험회피형, 위험중립형, 위험추구형으로 구분된다.

위험회피형은 위험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이보다 더 큰 기대수익의 증가가 있어야 동일한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수익의 증가에 따라 한계효용이 체감하는데, 위험회피형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대수익을 포기한다. 즉 기대수익이 작을지라도 위험이 작은 것에 따른 심리적 효용이 크기 때문에 낮은 기대수익으로 인한 효용의 감소를 상쇄하게 되어 기대수익이 낮은 투자안도 선택가능하게 한다.

위험중립형은 위험이 한 단계 증가할 때 똑같은 수준의 기대수익의 증가만 있으면 동일한 만족을 느낀다. 즉,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익에 의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며 기대수익이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추구형은 기대수익이 한 단계 증가할 때 그 이상의 위험이 증가해도 투자대안을 선택한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중기부채부담 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을 비교하고, 자산 유형별 보유액과 구성비를 비교 분석하며, 자산·부채와 관련된 주요 재무비율을 비교하고자 한다.

중기부채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사용하였으며(연구문제 2), 집단을 구분하기에 앞서 가계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과 총부채의 보유액을 비교하였다(연구문제 1). 또한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성장성을 평가(연구문제 3)하는데 근거가 되는 주요 자산 유형에 대해서도 조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가계의 부채부담과 부채상환능력의 적절성을 파악하고,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다각도에서 비교·분석하며, 특히 중기부채과부담 가계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재무 건전성 증진과 재무설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과 총부채의 보유액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중기부채부담수준(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에 따라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중기부채부담수준(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에 따라 가계의 자산부채구조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1.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유형별 자산과 부채의 보유액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금융자산 구성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3.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채무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계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를 주로 담당한다고 응답한 30대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마이크로밀엠브레인 EZ서베이 [www.ezsurvey.co.kr](http://www.ezsurvey.co.kr))을 통해 2012년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유의 할당하여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각 연령별로 남녀 응답자 각 50명씩 총 400명을 표집 하였다.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200부의 응답 자료를 먼저 확인하여 1차 데이터 스크리닝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즉 불성실 응답, 이상점(outlier), 정보 불일치 등으로 삭제해야 할 표본의 기준(예를 들어, 주거형태는 자가인데 부동산 보유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형태가 전세 또는 월세인데 전월세보증금이 없는 경우, 금융자산은 전혀 없고 전월세 보증금만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응답자를 추가 모집함으로써, 표본 자료의 유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수집

된 400부의 응답 자료에 대해 2차 스크리닝을 거쳐 총 39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측정도구의 구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은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주거형태, 주택관련부채보유 여부 및 월평균소득을 조사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나누어 응답토록 하였고, 직업은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주부,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광역시, 시·도로, 주거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주택관련부채보유여부는 주택 등 부동산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자금이 있는지를 질문하였고, 여기에는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 뿐 아니라,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마련을 위한 부채,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부채도 포함되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총 연간소득을 12로 나눈 값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 2) 심리적 특성

### (1) 현상유지편향

현상유지편향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는 것을 회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성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Knetsch & Sinden(1984), Samuelson & Zeckhauser(1988), Hartman & Doane & Woo(1991), 박세훈·김문용(2007)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3>과 같이 총 다섯 문항을 이용하여 현상유지편향을 측정하였다.

#### <표 3> 현상유지편향 측정 문항

- 
1. 펀드에 가입하면 종목구성을 바꾸는 편이다.
  2. 한번 결정한 일은 잘 바꾸지 않는다.
  3. 새로운 물건이나 장소를 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4.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장난감을 바꾼 적이 종종 있다.
  5.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면 하지 않는 편이다.
-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혀 아니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고, 1번과 4번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다섯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5~25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상유지편향을 높음을 의미한다.

## (2) 낙관주의성향

낙관주의성향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한다.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삶의 정향 평가지(A Reevaluation of life orientation test, LOT-R)와 김세희(2003)의 낙관주의 척도를 참고하여 <표 4>와 같이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표 4> 낙관주의성향 측정 문항**

- 
1. 나는 상황이 불확실할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편이다.
  2. 나는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느끼면 그렇게 되는 편이다.
  3.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4. 나는 대체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5. 나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다.
  6. 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전혀 아니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으며, 2, 3, 4번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여섯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6~30점으로 계산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주의성향이 높은 것이다.

## (3) 위험수용성향

위험수용성향은 개인 투자자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

미하며,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손실의 크기로 정의한다. 위험수용성향은 기존의 선행연구(Allais, 1979; Kahneman & Tversky, 1979)들의 질문을 재구성하여 <표 5>에 제시한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3번 문항은 역코딩한 후, ①부터 ⑤의 선택지에 각각 1점부터 5점을 부여하여, 세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5~15점으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수용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 <표 5> 위험수용성향 측정 문항

- 
1. 투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원금 보존에 대해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③ 투자수익을 위해 원금의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④ 투자수익을 위해 원금의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⑤ 기대수익이 높다면 투자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 
2. 귀하께서 TV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가정하십시오. 3단계까지 정답을 잘 맞춰 상금 200만원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4단계 퀴즈에 도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답을 맞히면 추가로 상금을 받지만, 틀리면 이미 획득한 200만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① 4단계 퀴즈에 도전하지 않고,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 ② 난이도 하 문제 (예상정답률 75%, 상금 500만원)를 선택한다.
    - ③ 난이도 중 문제 (예상정답률 50%, 상금 1,000만원)를 선택한다.
    - ④ 난이도 상 문제 (예상정답률 25%, 상금 5,000만원)를 선택한다.
    - ⑤ 난이도 최상 문제 (예상정답률 5%, 상금 1억원)를 선택한다.
- 
3. 귀하께서 주식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 후 주가가 20% 하락했다면,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① 가격이 떨어졌을 때 1,000만원을 더 투자한다.
    - ②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믿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 ③ 하락한 만큼 회복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본전이 되면 그 때 판다.
    - ④ 주식을 팔아서 CD(양도성예금증서)나 표지어음을 산다.
    - ⑤ 주식을 팔아서 정기예금에 예치한다.
-

### 3) 자산과 부채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관련 자산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금융자산은 다시 안전금융자산, 금융투자자산으로 구분한 후, 금융자산의 세부 유형을 포함하였다. 부채는 금융기관 담보대출, 신용카드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자산·부채 항목의 구분과 유형별 설명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자산·부채의 구분

구분		유형	설명	
안전 금융 자산	유동 자산	수시입출식 예금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약이 없고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는 예금 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 식예금, CMA 등	
		적립식저축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예) 정기적금, 주택청약저축(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장학적금 등	
		예치식저축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저축 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표지어음, 금전신탁, 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종신보험, 연금저축보험, 연 금저축보험, 교육보험 등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장성보험 제외		
자 산	금융 투자 자산	주식·채권·파생	증권사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지분권, 정 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등이 투자자들로 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표시한 차용증서, 다양한 투자위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권, 주 식 등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 가격변동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등을 포함.	
		펀드	적립식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운 용하여 실적배당을 받는 상품
			예치식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운 용하여 실적배당을 받는 상품
	기타저축	갯돈 불입금, 빌려준 돈 등		
금융자산			안전금융자산 + 금융투자자산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포함	
	전월세보증금		세입자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맡겨놓은 돈	
총자산			금융자산 + 부동산관련자산	

부 채	금융기관 자금대출	담보대출	주택, 기타부동산, 예·적금, 보험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신용대출	담보 없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포함
	신용카드부채		연체, 할부를 포함한 신용카드 미결제액 (일시불, 3개월 이내 할부 미결제액 제외)
	기타부채		직장대출, 계탄 후 미불입금, 개인,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등
	임대보증금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돈
	총부채		금융기관자금대출+신용카드부채+기타부채+임대보 증금

#### 4.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및 금융자산·부채 유형별 보유  
율 및 보유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중기부채부담수준(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에 의하여 구분된 가계  
의 사회경제적 특성, 심리적 특성 및 금융자산·부채 보유 특성을 집단별로 비  
교, 분석하기 위해 카이제곱( $\chi^2$ )검증과 독립표본 t-검증(t-test) 및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의 경우, 사후검정을 위해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수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에서 전체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주거형태, 주택관련부채보유 여부, 월 평균 가계 소득을 살펴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전체 조사대상자 391명 중 남성이 193명으로 전체의 49.4%였고, 여성은 198명(50.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대가 25.3%, 40대가 25.3%, 50대가 24.8%, 60대 가 24.6%를 차지했으며, 평균 연령은 48.57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31.7%, 대학교 졸업이 56.3%, 대학원 이상이 12.2%이었고,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사무직(29.2%), 주부(23.8%), 서비스·판매·기능직(17.9%), 전문·관리직(16.9%), 기타(12.2%)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3.1%,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는 16.9%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32.3%, 광역시가 29.7%, 시·도 소재지가 38.1%로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는 자가로 소유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67.0%였고, 전세 23.8%, 월세 7.7%, 기타 1.5%였으며, 거주주택, 그 외의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관련부채를 보유한 가계가 43.5%, 그렇지 않은 가계가 56.5%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469만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2년 3분기 전국가계의 월평균소득 414.2만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418.8만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2).

<표 7>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391)

변수	구분	빈도(%)또는 평균(S.D)
성별	남성	193 (49.4)
	여성	198 (50.6)
연령	30대	99 (25.3)
	40대	99 (25.3)
	50대	97 (24.8)
	60대	96 (24.6)
	평균(세)	48.57 (11.28)
교육수준	고졸 이하	124 (31.7)
	대졸(2년제 포함)	220 (56.3)
	대학원 이상	47 (12.2)
직업	전문·관리직	66 (16.9)
	사무직	114 (29.2)
	서비스·판매·기능직	70 (17.9)
	주부	93 (23.8)
	기타	48 (12.2)
배우자유무	유	325 (83.1)
	무	66 (16.9)
거주지역	서울	126 (32.2)
	광역시	116 (29.7)
	시·도	149 (38.1)
주거형태	자가	262 (67.0)
	비자가	129 (33.0)
주택관련부채보유여부	유	170 (43.5)
	무	221 (56.5)
월 평균 가계소득 (원)		4,696,547 (4,083,581)

## 2) 심리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 8>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

(n=391)

	평균 (S.D)	구분 <sup>1)</sup>	빈도 (%)
현상유지편향 <sup>2)</sup>	16.30 (2.27) [3.26] <sup>3)</sup>	상	121(30.9)
		중	126(32.2)
		하	144(36.8)
낙관주의성향 <sup>4)</sup>	20.44 (2.85) [3.40]	상	151(38.6)
		중	96(24.6)
		하	144(36.8)
위험수용성향 <sup>5)</sup>	8.43 (2.16) [2.18]	상	114(29.2)
		중	145(37.1)
		하	132(33.8)

1)  $m + \frac{1}{2}s.d$  이상을 상,  $m - \frac{1}{2}s.d \sim m + \frac{1}{2}s.d$ 를 중,  $m - \frac{1}{2}s.d$ 를 하로 구분함, 2) 범위: 5점~25점, 3) 5점 환산 평균, 4) 범위: 6~30점, 5) 범위: 3~15점

## 3) 자산·부채 보유 특성

조사대상자의 자산 유형별 보유율 및 보유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자산 보유율 및 보유액은 유동자산, 안전금융자산, 금융투자자산, 부동산관련자산과 총 금융자산의 유형별 보유율과 보유액을 살펴보았으며, 부채 보유율 및 보유액은 금융기관 자금대출, 신용카드부채, 기타부채와

총부채의 유형별 보유율과 보유액을 살펴보았다.

안전금융자산은 전체 391명 중 388명(99.23%)이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보유액은 약 4,347만원, 보유자의 평균은 약 4,381만원이었다. 유동자산 중 수시입출금식예금은 조사대상자의 96.16%가 보유하고 있어 보유율이 가장 높았고,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보유액은 약 929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966만원이었다. 적립식저축의 보유율은 77.4%, 보유액 전체평균은 약 927만원, 보유자의 평균은 약 1,197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치식저축의 경우에는 보유율은 51.1%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나, 전체 조사대상 평균은 약 1,473만원, 보유자 평균은 약 2,881만원으로 안전금융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성보험은 조사대상자의 71.8%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액 전체평균은 약 1,016만원, 보유자 평균은 약 1,414만원으로 수시입출금식 금이나 적립식, 예치식저축의 보유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금융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주식·채권·파생상품, 적립식·예치식펀드, 기타저축의 보유율 및 보유액을 살펴보았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75.1%가 금융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보유액은 약 2,223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2,956만원이었다. 이 중 주식·채권·파생상품 보유율은 38.1%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액은 약 942만원, 보유자 평균은 약 2,473만원으로 금융투자자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립식펀드는 조사 대상자의 37.0%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액 전체 평균은 487만원, 보유자 평균은 약 1,314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치식펀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1.2%만이 보유하고 있었지만, 보유자 평균액은 약 1,455만원으로 적립식펀드나 기타저축의 보유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기타저축 보유율은 36.5%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액은 약 484만원, 보유자 평균은 약 1,324만원이었다.

조사대상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특성을 살펴볼 때, 금융투자자산보다는 안전금융자산의 보유율이 월등히 높았고, 금융자산 보유액 구성비도 안전금융자산

이 66.2%, 금융투자자산이 3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관련자산의 전체 평균액은 약 2억 7,157만원이었다. 부동산자산의 보유율은 79.0%로 나타났고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보유액은 약 2억 3,911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3억 257만원이었다. 전·월세보증금의 보유율은 44.24%로 나타났으며, 평균 보유액은 약 3,245만원인데 반해 보유자 평균은 약 7,33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표 7>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67%였던 것을 고려하면, 약 12%의 가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거나, 자가는 없지만 그 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65.2%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액은 약 6,425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9,576만원이었다. 금융기관 자금대출 중 담보대출은 41.9%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조사대상자 평균액은 약 4,224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1억 72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27.3%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액은 약 578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2,115만원이었다. 신용카드 부채는 19.4%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액은 약 68만원, 보유자 평균액은 약 352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금은 거주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6.1%만이 보유하고 있었고, 보유자 평균액은 약 7,45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9> 조사대상자의 금융자산 유형별 보유율 및 보유액 현황

(N=391)

변수			보유율	보유액 (만원)		
			빈도 (%)	전체 평균 (S.D)	보유자 평균 (S.D)	
안전 금융 자산	유동 자산	수시입출금 식예금	376 (96.16)	929.09 (1626.51)	966.16 (1647.86)	
		적립식저축	303 (77.49)	927.96 (1725.36)	1197.47 (1876.31)	
		예치식저축	200 (51.15)	1473.97 (3879.23)	2881.62 (5041.35)	
		소계	385 (98.46)	3331.04 (4869.61)	3382.95 (4889.53)	
	저축성보험		281 (71.86)	1016.42 (1638.69)	1414.32 (1782.00)	
	소계		388 (99.23)	4347.47 (5411.40)	4381.09 (5418.73)	
	자 산	금융 투자 자산	주식·채권·파생	149 (38.10)	942.46 (2410.97)	2473.18 (3392.08)
펀드			적립식	145 (37.08)	487.45 (1973.08)	1314.45 (3037.94)
			예치식	83 (21.22)	308.89 (1187.25)	1455.16 (2239.58)
기타저축			143 (36.57)	484.43 (1419.55)	1324.58 (2100.91)	
소계			294 (75.19)	2223.26 (4341.99)	2956.78 (4787.27)	
총 금융자산			391 (1.00)	6570.73 (8218.91)	6570.73 (8218.91)	
부동산 관련 자산	부동산		309 (79.02)	23911.80 (33095.22)	30257.33 (34558.30)	
	전월세보증금		173 (44.24)	3245.56 (6633.06)	7335.35 (8341.90)	
	소계		391 (1.00)	27157.36 (34737.34)	27157.37 (34737.35)	
총자산			391 (1.00)	33728.10 (37444.75)	33728.10 (37444.75)	

부 채	금융기관 자금대출	담보대출	164 (41.94)	4224.97 (12153.31)	10072.96 (17150.28)
		신용대출	107 (27.36)	578.93 (1647.01)	2115.56 (2588.24)
	신용카드부채		76 (19.43)	68.43 (255.30)	352.09 (487.58)
	기타부채		37 (9.46)	172.15 (774.73)	1819.29 (1850.00)
	임대보증금		63 (16.11)	1201.28 (5045.82)	7455.61 (10619.40)
	총부채		255 (65.21)	6425.79 (15006.09)	9576.89 (17712.31)

## 2.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에 따른 자산과 부채 보유액 비교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가계를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 중기부채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금융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을 사용하였다(연구문제 2). 집단을 구분하기에 앞서, 가계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과 총부채의 보유액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중기부채부담 수준에 따라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성장성을 평가(연구문제 3)하는데 근거가 되는 주요 자산 유형에 대해서도 조사·비교하였다.

### 1)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비교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산과 부채보유액을 비교한 <표 10>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주거형태 및 주택관련부채보유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시입출금식예금,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을 포함하는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전문·관리직 종사자의 보유액이 약 4,724만원으로 사무직, 서비스·판매·기능직, 주부, 기타, 각각 약 2,841만원, 2,229만원, 3,809만원, 3,257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보유액이 약 3,543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보유액 약 2,283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주거형태가 자가인 집단의 보유액이 약 3,820만원으로 비자가 집단(약 2,336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택관련부채를 보유한 집단의 보유액이 약 3,788만원으로 주택관련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집단의 보유액 약 2,736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안전금융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교육수준과 직업, 거주지역과 주거형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이 보유액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관리직의 보유율이 약 9,573만원으로 나머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거주지역이 서울인 집단의 평균보유액이 약 8,229만원으로 광역시, 시·도 집단의 약 6,180만원, 5471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주거형태의 경우에는 자가인 경우의 보유액이 약 7,523만원으로 비자가(약 4,634만원)인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주택소유여부, 교육수준이 금융자산보유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임을 밝힌 유경원(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동산과 전·월세보증금을 포함하는 부동산관련자산의 경우 연령,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주거형태, 주택관련부채보유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0대의 보유액이 약 2억 7,157만원으로 30대, 40대, 50대 각각 약 1억 5,625만원, 2억 5,340만원, 3억 7,019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총자산 중 부동산액의 비중이 중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높다는 이은실·최현자(1998)의 연구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약 2억 9,971만원)이 그렇지 않은 집단(약 1억 3,301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거주지역이 서울인 집단의 보유액은 약 3억 8,794만원으로 광역시, 시·도 거주자 집단의 보유액 약 1억

9,202만원, 2억 3,510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관련부채를 보유한 집단의 보유액이 약 3억 1,252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보유액 약 2억 4,007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총자산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주거형태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60대의 보유액이 약 4억 4,231만원으로 30대, 40대, 50대의 보유액 2억 478만원, 3억 2,401만원, 3억 8,210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 집단의 보유액이 약 4억 1,829만원으로 고졸 이하(약 2억 7,266만원), 대졸(약 3억 5,639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이 서울인 집단(약 4억 7,023만원)이 광역시(약 2억 5,383만원), 시·도(약 2억 8,918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는 자가(약 3억 1,630만원)의 보유액이 비자가(약 2억 2,706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총부채의 경우에는 성별,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주거형태, 주택관련부채보유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의 보유액이 약 8,080만원으로 여성의 보유액 4,457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보유액이 약 7,141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보유액 약 1,833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의 보유액이 약 8,682만원으로 광역시(약 3,805만원)와 시·도 (약 6,084만원)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주거형태가 자가(약 7,451만원)인 집단이 비자가(약 3,796원)인 집단보다 보유액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외에도 주택관련부채를 보유한 집단의 보유액이 약 1억 702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보유액 약 2,817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거주형태 등이 차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부채 등과 같은 재무상태에 따라서도 부채보유여부나 부채규모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성영애·양세정, 1995, 전승훈·임병인, 2008)

<표 10>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n=391, 단위: 만원)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S.D)				
		유동자산	총금융자산	부동산관련자산	총자산	총부채
성별	남성 (n=193)	3503.41 (4893.39)	7045.94 (9270.81)	27755.49 (30490.36)	34801.44 (33218.60)	8080.91 (18734.45)
	여성 (n=198)	3163.02 (4852.80)	6107.52 (7037.48)	26574.34 (37498.14)	32681.86 (41207.42)	4457.02 (9859.33)
		.691	1.125	.336	.559	2.385*
연령	30대 (n=99)	2252.33 (2701.87)	4852.18 (5308.94)	15625.95 (20365.88)	20478.14 (21910.64)	3875.45 (6727.20)
	40대 (n=99)	3367.50 (5173.76)	7061.02 (10723.87)	25340.40 (23311.19)	32401.42 (29579.82)	6411.26 (16916.05)
	50대 (n=97)	3711.04 (5958.86)	7190.31 (8383.28)	31020.10 (43138.69)	38210.42 (44453.03)	9228.52 (21420.60)
	60대 (n=96)	4021.91 (4947.63)	7211.35 (7379.07)	37019.89 (42769.57)	44231.50 (45216.63)	5505.78 (10166.99)
		2.490	1.953	7.016***	7.513***	2.203
최종 교육 수준	고졸 이하 (n=124)	3054.57 (5511.48)	5347.84 (7216.96)	a 21918.70 (29208.25)	27266.55 (31892.30)	a 4426.32 (11924.66)
	대졸 (n=220)	3280.45 (4166.66)	6724.14 (7499.30)	ab 28915.27 (36218.79)	35639.41 (38158.66)	ab 7133.15 (17106.61)
	대학원 이상 (n=47)	4297.29 (5999.66)	9079.00 (12454.75)	b 32750.00 (39791.60)	41829.00 (45149.40)	b 6892.55 (11073.16)
		1.138	3.648*	2.316	3.270*	1.342
직업	전문관리직 (n=66)	4724.30 (6143.80)	b 9573.62 (12947.30)	b 30225.00 (31813.05)	39798.62 (38486.17)	ab 10121.74 (24130.46)
	사무직 (n=114)	2841.76 (3372.98)	a 5799.89 (5560.85)	a 22538.68 (25643.47)	28338.57 (26978.05)	a 4980.66 (8830.24)
	서비스·판매· 기능직 (n=70)	2229.12 (3517.20)	a 4906.14 (5655.19)	a 24268.14 (41162.81)	29174.28 (41952.93)	a 7304.32 (20747.77)
	주부 (n=93)	3809.47 (6207.59)	ab 7003.38 (8888.62)	ab 35301.07 (44237.50)	42304.46 (47235.12)	b 4817.98 (8878.43)
	기타 (n=48)	3257.37 (4248.44)	ab 5861.79 (5798.98)	a 22343.75 (21950.20)	28205.54 (23562.11)	a 5143.75 (7589.71)
		2.813*	3.407**	2.292	2.815*	1.677
배우 자유 부	유 (n=325)	3543.87 (5175.27)	6930.51 (8587.64)	29971.10 (35342.86)	36901.62 (37905.37)	7141.80 (16216.56)
	무 (n=66)	2283.04 (2726.15)	4799.09 (5819.45)	13301.81 (27914.35)	18100.90 (30860.19)	1833.63 (4059.28)
		2.855**	1.927	4.214***	4.330***	5.159***

거주 지역	서울 (n=126)	3952.52 (5289.16)	8229.76 (10484.23)	b	38794.04 (48135.33)	b	47023.81 (51608.75)	b	8682.98 (20132.56)	b
	광역시 (n=116)	3184.15 (5318.13)	6180.85 (7467.71)	a	19202.24 (17597.46)	a	25383.09 (21013.28)	a	3805.47 (6385.34)	a
	사도 (n=149)	2919.85 (4045.63)	5471.32 (6177.07)	a	23510.20 (28353.84)	a	28981.53 (29569.17)	a	6084.67 (14478.38)	ab
		1.615	4.094*		11.523***		12.745***		3.241*	
주거 형태	자가	3820.67 (5503.00)	7523.84 (9239.80)		31630.76 (34128.07)		39154.61 (37000.81)		7451.85 (17320.61)	
	비자가	2336.60 (3002.41)	4634.96 (5108.76)		18071.86 (34314.93)		22706.83 (36024.46)		3796.29 (8084.16)	
		3.446**	3.975***		3.687***		4.169***		2.844**	
주택 관련 부채 보유 여부	유 (n=170)	2736.88 (318.21)	6350.45 (679.81)		31252.41 (3053.00)		37602.87 (3302.49)		10702.05 (20037.29)	
	무 (n=221)	3788.09 (358.03)	6740.18 (518.12)		24007.33 (2016.87)		30747.51 (2170.08)		2817.90 (7976.16)	
		-2.195*	-.464		2.053*		1.800		4.844***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2) 심리적 특성에 따른 비교

<표 1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자산·부채보유액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낙관주의성향과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낙관주의성향이 높은 집단이 유동자산 보유액(약 3,982만원), 부동산관련자산보유액(약 3억 57만원), 총자산(약 3억 7,590만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수용성향의 경우 금융자산에서만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위험수용성향이 높은 집단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약 8,052만원으로 중간 집단, 낮은 집단의 보유액 각각 약 6,688만원, 5,161만원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상유지편향은 자산·부채 보유액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심리적 특성에 따른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n=391, 단위: 만원)

변수	구분	보유액 평균(S.D)				
		유동자산	금융자산	부동산관련자산	총자산	총부채
현상 유지 편향	상 (n=121)	3698.17 (6284.14)	7232.03 (9185.49)	26910.41 (33393.61)	34142.44 (36581.01)	6110.97 (12609.55)
	중 (n=126)	2934.38 (4101.98)	5843.53 (7764.88)	26152.53 (41674.29)	31996.07 (44133.51)	5097.88 (13201.65)
	하 (n=144)	3369.63 (4070.72)	6651.36 (7738.19)	28244.09 (28894.85)	34895.45 (31531.57)	7363.50 (18053.46)
F		.765	.891	.126	.211	.772
낙관 주의 성향	상 (n=151)	3982.17 (6324.20)	b 7532.97 (10327.22)	30057.94 (35897.18)	b 37590.92 (39292.17)	b 7159.60 (18766.58)
	중 (n=96)	3483.48 (3950.86)	ab 6935.56 (6547.01)	33623.02 (45446.27)	ab 40558.58 (47419.23)	b 6866.82 (13275.03)
	하 (n=144)	2546.63 (3356.48)	a 5318.50 (6421.44)	19805.34 (21812.70)	a 25123.85 (24270.22)	a 4873.54 (11162.44)
F		3.304*	2.827	5.541**	6.373**	.964
위험 수용 성향	상 (n=114)	3995.74 (6510.18)	8052.20 (11368.37)	b 28315.78 (33039.32)	36367.99 (37354.45)	6195.09 (15623.31)
	중 (n=145)	3367.07 (4434.83)	6688.60 (7137.99)	ab 28980.13 (39431.92)	35668.73 (41421.01)	7313.55 (14433.77)
	하 (n=132)	2717.40 (3413.56)	5161.81 (5448.89)	a 24154.62 (30458.19)	29316.43 (32477.48)	5116.67 (15109.12)
F		2.126	3.862*	.755	1.397	.740

\*P<0.05,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3.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 비교

#### 1)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조사대상가계를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중기부채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로 금융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을 사용하였다. 금융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의 준거기준은 선행 연구에 따라 다소 상이한데, 최윤지·최현자(1998), 최현자 외(2003) 등의 연구에서는 10배 미만으로 보았으나, 양세정·정지영(2010)의 연구에서는 4~5배를 준거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사한 지표로 Griffith(1985)는 총부채 대비 유동자산 및 기타금융자산의 비율을 0.2~0.3으로 제시했고, 양정선(1997)은 총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의 준거기준을 0.1이상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재무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양세정·정지영(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준거기준을 토대로, 금융자산대비 총부채 비율이 4배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4배를 넘지 않은 부채부담적정가계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여 집단을 세분화하였다.

즉 부채미보유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를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에 따라, 조사대상자 중 부채미보유 가계가 34.8%,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는 31.5%,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는 20.7%, 부채과부담 가계는 13.0%로 나타났다.

<표 12>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집단 구분

(n=391)

구분	기준	빈도(%)
부채미보유 가계	부채보유액= 0	136(34.7)
$0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1$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0 초과 1이하	123(31.4)
$1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4$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 초과 4이하	81(20.7)
부채과부담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 초과	51(13.0)

## 2)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부채미보유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의 각 집단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사회경제적 특성은 성별, 배우자유무, 주택관련부채보유여부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 부채미보유 가계의 비율이 높은 것에 반하여, 남성인 경우 부채과부담 가계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의 비율이 높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채과부담 가계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가 여성이고 배우자가 없는 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남성이고 배우자가 있는 가계보다 금융자산 보유액은 적으나(<표 10>참조), 부채보유경향 역시 낮아 보다 안전한 자산운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관련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경우에는 부채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기부

채부담지표값이 높고,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에 속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n=391)

변수	구분	빈도	평균(S.D) 또는 빈도(%)				$\chi^2/F$
			부채 미보유 가계 (n=136)	$0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1$ (n=123)	$1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4$ (n=81)	부채 과부담 가계 (n=51)	
성별	남성	193	57(29.5)	65(33.7)	39(20.2)	32(16.6)	7.31*
	여성	198	79(39.9)	58(29.3)	42(21.2)	19(9.6)	
연령	30	99	34(34.3)	32(32.3)	20(20.2)	13(13.1)	3.68
	40	99	32(32.3)	28(28.3)	24(24.2)	15(15.2)	
	50	97	33(34.0)	33(34.0)	17(17.5)	17(14.4)	
	60	96	37(38.5)	30(31.3)	20(20.8)	9(9.4)	
교육 수준	고졸이하	124	47(37.9)	37(29.8)	28(22.6)	12(9.7)	5.65
	대졸	220	78(35.5)	67(30.5)	44(20.0)	31(14.1)	
	대학원이상	47	11(23.4)	19(40.4)	9(19.1)	8(17.0)	
직업	전문관리직	66	18(27.3)	22(33.3)	15(22.7)	11(16.7)	7.77
	사무직	114	36(31.6)	42(36.8)	25(21.9)	11(9.6)	
	서비스·판매· 기능직	70	29(41.4)	18(25.7)	14(20.0)	9(12.9)	
	주부	93	37(39.8)	26(28.0)	18(19.4)	12(12.9)	
	기타	48	16(33.3)	15(31.3)	9(18.8)	8(16.7)	
배우자 유무	유	325	104(32.0)	105(32.3)	68(20.9)	48(14.8)	9.16*
	무	66	32(48.5)	18(27.3)	13(19.7)	3(4.5)	
거주 지역	서울	126	43(34.1)	39(31.0)	25(19.8)	19(15.1)	4.80
	광역시	116	40(34.5)	39(33.6)	28(24.1)	9(7.8)	
	시도	149	53(35.6)	45(30.2)	28(18.8)	23(15.4)	
주거 형태	자가	262	89(34.0)	77(29.4)	58(22.1)	38(14.5)	3.30
	비자가	129	47(36.4)	46(35.7)	23(17.8)	13(10.1)	
주택관 련부채 보유여 부	유	170	21(12.4)	55(32.4)	58(34.1)	36(21.2)	84.90* **
	무	221	115(52.0)	68(30.8)	23(10.4)	15(6.8)	
월 평균 가계소득		391	4582353 (4321400)	4988211 (4219690)	4659259 (4393540)	4356863 (2225512)	.363

\*P<0.05,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3)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비교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표 14>를 살펴보면, 위험수용성향에서 집단 간에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의 위험수용성향 평균점수(8.92점)가 가장 높았으며, 현상유지편향, 낙관주의성향은 4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제시한 <표 11>의 결과에서 위험을 선호하는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점을 고려할 때, 부채과부담 가계는 다른 집단의 비해 월등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14>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심리적 특성 비교

변수	평균(S.D) 또는 빈도(%)				F
	부채미보유 가계 (n=136)	0 < 총부채 금융자산 ≤ 1 (n=123)	1 < 총부채 금융자산 ≤ 4 (n=81)	부채과부담 가계 (n=51)	
현상유지편향	16.22 (2.20)	16.43 (2.48)	16.29 (2.07)	16.13 (2.27)	.267
낙관주의성향	20.16 (2.76)	20.91 (2.91)	20.25 (2.95)	20.35 (2.68)	1.65
위험수용성향	8.19 (2.22) ab	8.76 (2.28) bc	8.03 (1.93) a	8.92 (1.89) c	3.33*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4.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가계의 자산·부채 구조 비교

##### 1)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구분한 부채미보유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의 자산·부채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우선 유형별 자산 보유액을 비교해 보면, 수시입출금식예금,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유동자산 총액, 저축성보험, 안전금융자산 총액, 예치식펀드, 기타저축, 금융투자자산 총액, 금융자산 총액,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부동산관련자산 총액, 총자산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유동자산 총액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 이하인 가계와 1 이상인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시입출금식예금,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모두에서 부채과부담(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 가계의 보유액이 가장 적었고, 중기부채부담수준이 높아질수록 각각의 보유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성보험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채과부담(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 가계의 보유액이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자산과 저축성보험을 포함한 안전금융자산의 보유액을 비교해보면,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배 이하인 가계, 1배 초과 4배 이하인 가계, 4배 초과인 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기부채부담이 큰 가계일수록 안전금융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금융투자자산의 경우에는 적립식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자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금융투자자산 총액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를 기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4배를 초과하는 부채과부담 가계의 금융투자자산 총액이 유의하게 적었고, 그 이하의 가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식·채권·파생상품 평균보유액은 부채과부담 가계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이와 같이 위험자산의 보유액이 적게 나타난 것은 <표 11>에서 부채과부담 가계의 위험수용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는 부채과부담 가계가 위험자산보다는 투자를 위한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예치식편드와 기타저축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적립식편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4배를 초과하는 부채과부담 가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부동산관련 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채과부담의 원인이 부동산 마련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기부채부담수준 집단에 따라 유형별 부채 보유액을 비교해 보면, 담보대출, 신용대출, 금융기관자금대출 총액, 신용카드부채, 기타부채, 금융부채 총액, 임대보증금, 총부채 등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규모는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보대출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신용대출은 부채과부담 가계가 유의하게 많았으나 적정가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부담 가계의 경우, 부동산자산과 총자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력을 근거로 많은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부채와 임대보증금 역시 부채과부담 가계의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

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부채 총액, 총부채 규모도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구분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이 적정수준을 넘는 부채과부담 가계의 경우 분모인 금융자산 보유액은 유의하게 적고, 분자인 총부채 보유액은 유의하게 많았다. 그리고 총자산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과부담 가계는 총부채를 상환할 만큼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기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총자산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채상환 측면에서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가계의 경우, 부동산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보유액을 증가시켜 중기적 측면에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표 15>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유형별 자산의 보유액 비교

(n=391, 단위: 만원)

구분		전체 (n=391)	평균 보유액 (만원)						F			
			부채미보유가 계 (n=136)	$0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1$ (n=123)		$1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4$ (n=81)		부채과부담 가계 (n=51)				
안전 금융 자산	수시 입출 금식 예금	929.03	987.81	ab	1196.21	b	708.76	ab	478.23	a	3.01*	
	유 동 자 산											
	적립식 저축	927.96	992.72	b	1231.51	b	776.54	ab	263.72	a	4.15**	
	예치식 저축	1473.97	2268.23	c	1686.70	bc	588.02	ab	250.00	a	5.29**	
	소계	3331.04	4248.77	b	4114.430	b	2073.33	a	991.96	a	8.90***	
	저축성 보험	1016.42	1046.65	b	1261.55	b	983.07	b	397.62	a	3.43*	
소계	4347.47	5295.42	c	5375.99	c	3056.40	b	1389.58	a	10.15***		
자 산	금융 투자 자산	주식채권 파생	942.46	1079.70	b	1099.71	b	974.44	b	146.47	a	2.19
		적립식펀드	487.45	741.61		490.21		295.67		107.64		1.64
		예치식펀드	308.89	366.69	ab	492.51	b	112.22	a	24.31	a	2.84*
		기타저축	484.43	299.51	a	886.75	b	467.16	ab	34.70	a	5.99**
		소계	2223.26	2487.52	b	2969.19	b	1849.50	b	313.13	a	5.01**
총금융자산		6570.73	7782.95	c	8345.18	c	4905.91	b	1702.72	a	10.71***	
부동 산관 련자 산	부동산	23911.80	17139.70	a	24044.82	a	22975.30	a	43137.25	b	8.07***	
	전월세 보증금	3245.56	2069.92	a	3491.51	ab	3827.16	ab	4863.72	b	2.73*	
	소계	27157.36	19209.63	a	27536.34	a	26802.46	a	48000.98	b	9.02***	
총자산		33728.10	26992.58	a	35881.52	a	31708.38	a	49703.70	b	4.91**	

부 채	금융 기관 자금 대출	담보대출	4224.97		1393.52	a	6651.35	b	18466.68	c	42.34***
		신용대출	578.93		528.98	b	872.83	b	1776.47	c	17.44***
		소계	4803.91		1922.51	a	7524.19	b	20243.15	c	48.61***
		신용카드부채	68.43		74.54	ab	89.62	b	202.54	c	8.63***
		기타부채	172.15		159.46	ab	396.29	b	305.88	b	5.17**
		총금융부채	5044.50		2156.52	a	8010.12	b	20751.58	c	49.89***
		임대보증금	1201.28		920.15	ab	1641.66	b	4383.33	c	10.35***
		총부채	6245.79		3076.67	a	9651.79	b	25134.92	c	53.30***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2)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구성비 비교

<그림 1>과 <표 16>은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구분한 부채미보유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의 금융자산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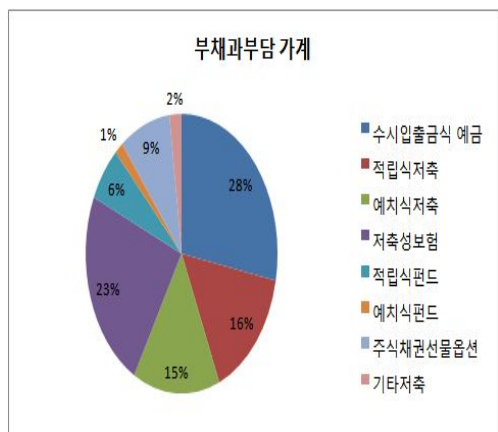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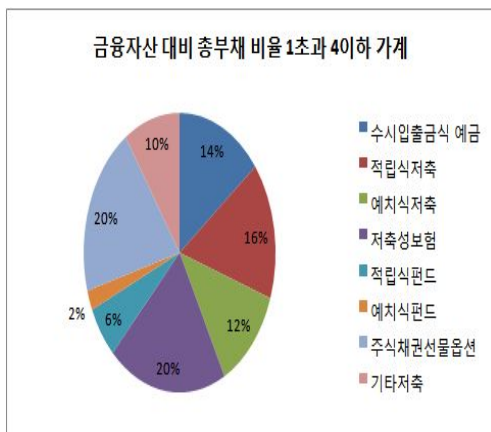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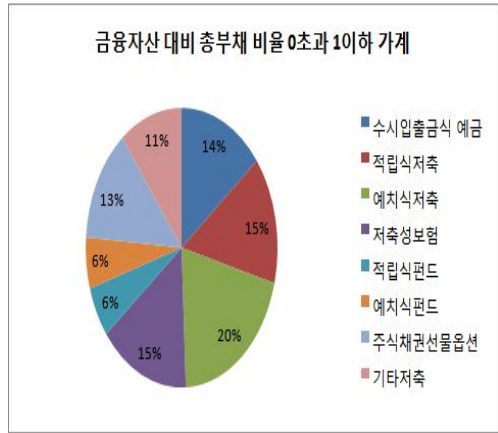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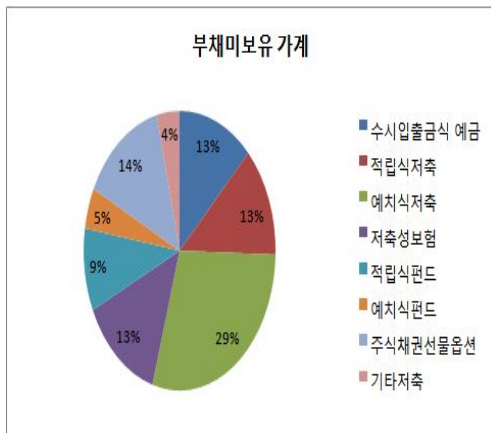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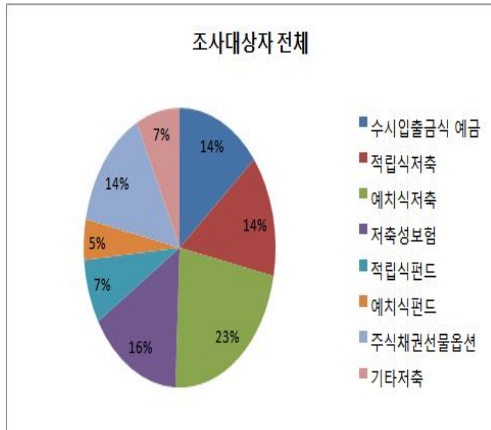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금융자산과 금융투자자산이 각각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기부채부담 수준별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4배를 초과하는 부채과부담 가계의 경우, 안전금융자산의 비중(81.8%)이 유의하게 높고, 금융투자자산 비중(18.1%)

이 유의하게 낮았다.

안전금융자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채과부담 가계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예치식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배를 초과하는 가계보다 1배 이하인 가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저축성보험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배 초과 4배 이하인 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투자자산 중에서는 예치식펀드과 기타저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치식펀드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배를 초과하는 가계보다 1배 이하인 가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그림 1>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자산유형별 구성비 비교



<표 16>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금융자산 구성비 비교

(단위:%)

구분	전체 (n=391)	부채미보유 가계 (n=136)		$0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1$ (n=123)		$1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4$ (n=81)		부채과부담 가계 (n=51)	F	
총금융자산	100	100		100		100		100		
안전금융자산	72.2	73.7	ab	68.8	a	68.72	a	81.8	b	3.09*
수시입출금식예금	22.0	21.4	a	17.8	a	17.8	a	40.2	b	11.38* **
적립식저축	16.4	16.1		16.0		19.0		14.4		.589
예치식저축	16.1	22.2	b	17.1	b	09.4	a	07.9	a	6.99** *
저축성보험	17.5	13.9	a	17.8	ab	22.4	b	19.1	ab	2.57
금융투자자산	27.7	26.2	ab	31.1	b	31.2	b	18.1	a	3.09*
주식채권과생	11.2	10.9		10.7		15.4		06.5		1.81
적립식펀드	05.6	06.1		05.7		03.8		06.7		.746
예치식펀드	03.1	03.9	ab	04.2	b	01.2	a	01.3	a	2.84*
기타저축	07.7	05.1	a	10.4	b	10.8	b	03.4	a	4.03**

\*P<0.05,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3) 주요 재무비율 비교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구분한 부채미보유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 집단별로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과 부채 측면에서 가계의 재무 안정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재무비율인 총자산 대비 총부채, 총부채 대비 실물자산,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대표적 재무비율인 총자산 대비 금융투자자산,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을 살펴보았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대표적인 장기부채부담지표로서, 총자산으로 총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 부채청산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의 준거기준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80% 미만(최현자 외, 2003), 50% 미만(양세정 외, 2010), 40% 미만(Lytton, Grable, & Lock, 2006)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기부채 과부담가계로 구분된 집단의 경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76%로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기부채 부담이 적정수준인 가계는 장기부채부담지표 역시 적정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부채 대비 실물자산 비율 역시 가계의 장기적 부채부담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실물자산을 처분할 경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양정선, 1997; 최윤지·최현자, 1998; 안승철·김년희, 2001)에서는 1.0 이상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총부채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가 52.8배로 유의하게 높았고,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

배 가계가 각각 3.9배, 2.7배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는 부채보유액이 매우 낮은 반면, 부동산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가계도 선행연구의 준거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대비 금융투자자산 비율은 가계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즉, 위험부담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자산이 총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평가하는 투자성향지표이며,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는 5~10%를, 양세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20~25%를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부채미보유 가계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에서 상대적으로 금융투자자산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10% 이하로, 성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도 투자성향지표 중 하나이다. 보유 부동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가계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거주주택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유동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현자 등(2003)의 연구에서는 90% 미만을, 양세정 외(2010)의 연구에서는 60% 미만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채과부담 가계가 94%로 가장 높았고,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가 81%,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와 부채미보유 가계는 각각 66%와 65%로 나타났다.

최현자 외(2003)에서 제시한 준거기준을 적용하면, 부채과부담 가계만이 적정수준을 벗어나지만, 최근 연구인 양세정 외(2010)의 준거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가계가 적정수준을 벗어나 성장성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유동성과 성장성 측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의 바람직한 준거기준은 60% 미만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00년대 이후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가계는 실물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채과부담 가계의 경우에는 실물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통해 유동성과 성장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가계경제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유동성 지표이다. 이 지표의 준거기준은 유동자산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수시입출금식예금, 적립식, 예치식저축까지를 유동자산으로 보았다. 금융권 및 사금융 저축 보유액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을 구한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는 10% 이상을 준거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부채미보유 집단의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은 20%인데 반해,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4배 초과)의 비율은 2%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채과부담 가계의 유동성지표는 준거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계의 성장성 뿐 아니라 비상자금지표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부채과부담 가계의 경우, 총자산에서 금융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고,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앞서 <표 15>에서 중기부채과부담 가계의 부동산 보유액과 총자산, 총부채 규모가 다른 집단 보다 유의하게 많았던 것을 상기하면, 부채과부담 가계는 결국 부동산 마련을 위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계의 성장성 측면에서 제한을 받고 있

는 것이다.

<표 17>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른 주요채무비율 비교

(n=391)

구분	채무비율	평균 (S.D)							F		
		전체 (n=391)	부채미보유 가계 (n=136)	$0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1$ (n=123)		$1 <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leq 4$ (n=81)		부채과부담 가계 (n=51)			
안정성 지표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21 (.48)		.00 (.12)	a	.39 (.34)	b	.76 (1.04)	c	50.19** *	
	$\frac{\text{실물자산}}{\text{총부채}}$	27.22 (119.46)		52.77 (168.59)	b	3.89 (4.47)	a	2.69 (2.97)	a	5.63**	
성장성 지표	$\frac{\text{금융투자자산}}{\text{총자산}}$	.08 (.12)	.09 (.14)	bc	.10 (.12)	c	.06 (.07)	b	.01 (.07)	a	7.29***
	$\frac{\text{실물자산}}{\text{총자산}}$	.73 (.23)	.65 (.23)	a	.66 (.23)	a	.81 (.13)	b	.94 (.08)	c	34.24** *
	$\frac{\text{유동자산}}{\text{총자산}}$	.14 (.16)	.20 (.19)	c	.17 (.17)	c	.08 (.09)	b	.02 (.02)	a	20.08** *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 자산유형별 보유액과 구성비를 비교 분석하고, 재무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졸이상, 직업이 전문관리직, 서울에 거주하는 가계, 자가로 보유한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부채 보유액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30대, 거주지역이 광역시,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가계, 주택관련부채가 없는 가계의 부채 보유액이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자산과 부채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 낙관주의성향이 높은 집단의 유동자산, 부동산관련자산, 총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위험수용성향이 높은 집단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둘째,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사용하여 총 391명 조사대상 가계의 중기부채부담수준을 구분한 결과, 부채미보유 가계 136명(34.8%),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 123명(31.5%),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81명(20.7%), 부채 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 51명(13.0%)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부채미보유 가계의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가계는 배우자가 있는 가계보다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및 총부채 보유액이 모두 유의하게 적었고, 가구주가 여성인 가계도 남성 가계 보

다 유의하게 적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가계는 부채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적이지만, 금융자산이나 총자산 규모 면에서 볼 때 성장성 측면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넷째,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심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의 위험수용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앞서 위험선호성향이 높은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의 결과를 고려하면 부채과부담 가계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상컨대 투자목적의 부채를 보유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가계의 자산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자산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금융자산은 수시입출금식예금,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및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부채과부담(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 가계의 보유액이 가장 적었고, 중기부채부담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보유액은 감소했다. 금융투자자산 총액과 주식·채권·파생상품의 위험자산 보유액은 부채과부담 가계가 다른 집단 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위험자산 보유액이 적게 나타난 것은 앞서 부채과부담 가계의 위험수용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던 것과는 다소 배치되는 결과인데, 부채과부담 가계가 위험자산보다는 투자를 위한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채과부담 가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부동산관련 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았다. 이는 중기부채 과부담의 원인이 부동산 마련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중기부채부담수준 집단에 따라 가계의 부채 보유액을 비교한 결과, 모든 부채유형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금융기관 자금대출규모는 부채과부담 가계(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4배 초과)가 가장 컸고,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4배 가계,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

계의 순이었는데,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채과부담 가계는 부동산자산과 총자산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담보력과 신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금융자산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 부채 과부담 가계는 안전금융자산의 비중이 유의하게 낮고,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부채과부담 가계의 위험수용성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덟째,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가계의 재무 안정성 지표를 살펴본 결과, 부채과부담 가계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76%로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총부채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모든 가계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의 총부채 대비 실물자산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부채보유액이 매우 낮은 반면 부동산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홉째,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가계의 재무 성장성을 살펴본 결과, 총자산 대비 금융투자자산 비율은 부채미보유 가계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10% 이하로 성장성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모든 가계가 65% 이상으로 적정수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특히 부채과부담 가계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실물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자산포트폴리오의 변화를 통해 유동성과 성장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총자산 대비 유동자산 비율의 경우, 부채과부담 가계가 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었는데, 가계의 성장성 뿐 아니라 비상자금지표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제언

본 연구는 중기부채부담수준에 따라 가계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특성과 자산·부채 보유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각 집단별 가계의 자산부채구조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결론 및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부채과부담 가계는 총부채를 상환할 만큼의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가계이다. 이들 가계는 금융자산과 총부채 중 어느 한 쪽의 영향이 아니라, 분모인 금융자산 보유액이 유의하게 적고, 분자인 총부채 보유액이 유의하게 많기 때문에 부채과부담 가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가계는 총자산 보유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지만, 총부채 규모가 월등히 컸기 때문에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역시 76%로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 즉 중기부채과부담 가계가 장기적으로도 부채청산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부채상환을 우선적인 재무목표로 삼고, 부동산자산 보다는 금융자산의 보유액을 증가시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채미보유 가계와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1배 이하 가계는 금융자산 보유액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많고, 부동산관련 자산 보유액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었다. 이들 가계는 부채부담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일 뿐 아니라,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이들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투자자산 비율은 각각 9%와 10%에 불과하다. 가계의 재무 성장성을 위해 안전금융자산 보다는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총자산 대비 금융투자자산 비율은 모든 가계가 10% 이하로 적정 수준에 크게 못 미쳤으며, 특히 부채과부담 가계는 1%에 불과했다. 반면, 총자

산 대비 실물자산 비율은 모든 가계가 65% 이상으로 걱정 수준을 초과했으며, 부채과부담 가계는 94%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기부채 과부담 가계는 결국 부동산 마련을 위해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가계의 성장성이 제한을 받는 것이다. 가계의 유동성과 성장성 측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실물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금융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상유지편향, 낙관주의성향 등 심리적 특성을 측정함에 있어, 척도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갖는 공통적 문제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보다 정교한 실험설계를 통해 재무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현상유지편향, 낙관주의성향 등 심리적 특성은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유의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포트폴리오는 의사결정과정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이용한 중기부채부담지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단기부채부담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부채보유의 부담과 부채상환의 부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강민석·최은영(2010). 가계 자산포트폴리오 분석과 변화의 필요성. 메리츠증권 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연구보고서.
- 금융경제연구원(200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선택 결정요인. 금융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경아(2011). 국내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및 요인에 관한 연구: 미시자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응용경제, 13(1), 209-237.
- 김미형(2008).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부채계정의 특성분석. 국제회계연구, 24, 125-144.
- 김세희(2003). 현실적 낙관주의자와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의 심리적 특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우영·김현정(2010).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16(1), 39-78
-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 남상호·권순현(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꺾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3-32.
- 도모노노리오(2007). 행동경제학-경제를 움직이는 인간심리의 모든 것. 이명희(역), 지형
- 문숙재, 양정선(1996). 가계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투자 분석-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09-120.
-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93-206.

- 박귀영(2012). 위험감수도 및 현상유지편향이 가계의 재무관리행동 및 경제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세훈, 김문용(2009), “현상유지편향을 조절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마케팅 연구, 24(3), 149-171.
- 박주영·최현자(1999). 자산계층별 가계 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93-206.
- 배미경(2006). 가계포트폴리오 구성 및 영향변수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9(4), 123-139.
- 성영애(2000). 가구주 직업이 가계부채구조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9(1), 21-32.
- 성영애(2010). 가계부채의 용도별 보유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1(3), 29-52.
-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3권 1호 207-219
- 안승철·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 73-97
- 양세정·정지영(2010). 국내 재무설계전문가(FP: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재무지표값 조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경원(200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선택 결정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185, 1-33.
- 이은미 (2002) 가계의 부채수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형태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 임경목(2002). 한국 가계금융자산 구성의 결정요인 분석: 주식보유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 전승훈·임병인(2008).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의 변화분석. 재정학연구, 1(2), 133-162
- 정영숙(2006). 가계부채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거시경제 요인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원, 19(6), 2483-2504
- 정운영, 김경자(2004). 가계재무위험구성요소들의 관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2(10), 11-22.
- 채은석·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최윤자·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지은·정순희·여윤경(2005). 소비자의 자산계층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소비자학연구, 16(1), 55-71.
- 최현자(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79-291
-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1
- 통계청(2012). 가계금융조사.
- 한국은행(2012). 금융안정보고서.
- Allais, M and O. Hagen(1979). The Foundation of a Positive Theory of Choice Involving Risk and a Criticism of the Postulates and Axioms of the American school. Expected Utility Hypothesis and the Allais Paradox, Reidel, 27-145.

- DeVaney, S.(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Garman, E.T. & Fogue, R.E(1994). *Personal Finance*. 4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Grable, J. E., & Lytton, R(1999). Financial Risk Tolerance Revisited: the development of a risk assessment instrument. *Financial Services Review* 8, 163–181
-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Hartman, R. S., M. J. doane and Chi–Keung Woo(1991). Consumer Rationality and the Status Quo.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141–162.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806–820. doi:
- Kahneman, D. and Tversky, A.(1979). An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netsch, J. L. and J. A. Sinden(1984). Willingness to pay and Compensation Demanded: Experimental Evidence of an Unexpected Disparity in Measures of Valu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99,
-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 Markowitz, H. M.(1952). *Portfolio Selection: Efficient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s*. John Wiley & Sons, New York.
- Pollin, R(1988). *The growth of U.S household debt: Demand–side*

- influences. *Journal of Macroeconomics*, 10, 231–248.
- Questions based on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amuelson, W. and R. Zeckhauser(1988). Status Quo Bias in Decision Making.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 7–59.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 influence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16, 201–228.
- Weinstein, N. D. (1980). Unrealistic optimism about future lif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5), Nov 1980, 806–820.

## 설문지

1. 귀하 또는 귀하 가족의 금융거래와 자산관리는 주로 누가 하십니까?

- ① 나 혼자 독립적으로 한다.
- ② 배우자와 함께 한다.
- ③ 부모와 함께 한다.
- ④ 배우자 혼자 독립적으로 한다. ⇒ 응답중단
- ⑤ 부모가 독립적으로 한다. ⇒ 응답중단

2. 귀하께서 TV 퀴즈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고 가정하십시오. 3단계까지 정답을 잘 맞춰 상금 200만원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4단계 퀴즈에 도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답을 맞히면 추가로 상금을 받지만, 틀리면 이미 획득한 200만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① 4단계 퀴즈에 도전하지 않고, 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 ② 난이도 하 문제 (예상정답률 75%, 상금 500만원)를 선택한다.
- ③ 난이도 중 문제 (예상정답률 50%, 상금 1,000만원)를 선택한다.
- ④ 난이도 상 문제 (예상정답률 25%, 상금 5,000만원)를 선택한다.
- ⑤ 난이도 최상 문제 (예상정답률 5%, 상금 1억원)를 선택한다.

3. ○○씨는 4,000만원을 대출 받아 매달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고 있던 적금의 만기일이 되어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귀하가 ○○씨라면 4,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 ① 대출금 4,000만원을 상환한다.
- ② 정기예금에 예치한다.



내가 하는 일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대체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편이다.					
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6. 귀하께서 주식에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한 달 후 주가가 20% 하락했다면, 다음 중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① 가격이 떨어졌을 때 1,000만원을 더 투자한다.
- ②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믿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 ③ 하락한 만큼 회복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본전이 되면 그 때 판다.
- ④ 주식을 팔아서 CD(양도성예금증서)나 표지어음을 산다.
- ⑤ 주식을 팔아서 정기예금에 예치한다.

7. 투자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원금 보존에 대해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 ③ 투자수익을 위해 원금의 1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④ 투자수익을 위해 원금의 20% 미만까지는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 ⑤ 기대수익이 높다면 투자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는다.

8. 다음은 귀하 또는 귀하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기준 보유액 (적립총액 또는 현재평가액)을 적어주세요. ※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종류	보유액 (현재 평가액)	설 명
자 산		수시입출금식 예금	만원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에 제약이 없고 수 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 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예금, CMA 등
		적립식 저축	만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예) 정기적금, 주택청약저축(부금), 장기주 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장학적금 등
		예치식 저축	만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저축 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 어음(CP), 표지어음, 금전신탁, 주택청약예 금 등
		저축성보험	만원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종신보험, 연금지 축보험, 연금저축보험, 교육보험 등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보장성보험 제외
	펀드	적립식	만원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금융투자 회사가 운용하여 실적배당을 받는 상품
		예치식	만원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치하고, 금융투자 회사가 운용하여 실적배당을 받는 상품
		주식·채권·파생	만원	
		기타저축	만원	갯돈 불입금, 빌려준 돈 등
		부동산	만원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포함
		전·월세보증금	만원	세입자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맡겨놓은 돈

부 채	금융기관 자금대출	담보대출	만원	주택, 기타부동산, 예·적금, 보험 등을 담 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신용대출	만원	담보 없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현금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포함
	신용카드부채		만원	연체, 할부를 포함한 신용카드 미결제액 (일시불, 3개월 이내 할부 미결제액 제 외)
	기타부채		만원	직장대출, 계탄 후 미불입금, 개인,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 등
	임대보증금		만원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세입자에게 받은 돈

8-1. 주택 등 부동산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9. 귀하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귀하의 투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공격투자형                      ② 주식선호형                      ③ 주식형편드선호형
- ④ 고수익채권선호형              ⑤ 혼합투자형                      ⑥ 안전투자형
- ⑦ 이자소득선호형



## ABSTRACT

### Comparison of Household Assets Portfolio consequent on intermediate-term debt burden level

Jung, Da-eun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household debt in our country is perceived not only as a household debt but it is also perceived as a social problem. As of June, 2012, our nation's household debts amount to 992 trillion won, and particularly, low-income households' debts are ever increasing( Bank of Korea, 2012). Considerable numbers of those are estimated to retain debts for paying the cost of living, so its problems can be more serious.

The preceding studies have measured & evaluated a household's debt burden and debt repayment ability using diverse financial ratios and indexes. Looking into household assets, size of debts and their component proportion ratio will make it possible to grasp the overall characteristic of a household financial standing, but there is a limit to evaluation of complex aspects, such as a household's stability and growth, etc.

In contrast, it has a strong point in providing an objective scale to a household's

financial ability using a financial ratio.

The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or long term debt burden index evaluates the stability of a household assets status from the aspect of stock. However, even though the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is low, but if most of the total assets are real estate, it's hard to see the real debt burden capacity as adequate. Considering that most of the households are possessing more than 70% of total assets in the form of real estate, the intermediate-term debt burden index, which is measured by the total debts to financial assets ratio, is judged to be a more useful index in that it evaluates how much assets excluding real estate can repay the debt.

Hereupon, this study compared socio-econom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mad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tained amount by asset type and component proportional ratio, and compared financial stability index and growth index after dividing the intermediate-term debt burden level into a household not in possession of debts, a household with less than one time the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a household with one-time to 4 times the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and a household with a debt overburden( in excess of 4 times the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Targeting 300 men and women in their 30s or upwards who gave a response that they were mostly in charge of financial dealings and asset management, this study conduc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and then made an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rom 391 subjects excluding 9, whose data were judged to be inappropriate for this analysis, us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et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retained amounts of financial assets were significantly large in case a householder has a college diploma or higher, takes an administrative position, and a household dwells in Seoul, and a household in

possession of its own house. The retained amounts of deb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small in case a householder is in his/her 30s.; in case a householder's residential area is a metropolitan city; in case a household is not possessed of its own house, and a household is free of debts related to housing. In addition, a group with high dispositional optimism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large retained amounts of movable property, assets related to real estate portfolio, and total assets while a group having a high risk-accepting propensity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large retained amounts of financial assets.

Second, as a result of dividing the intermediate-term debt burden level of a total of 391 survey target households using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it was found that the debt burden range was distributed in 136 households having no possession of debts(34.8%), 123 households(31.5%)which were in less than one time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ratio, 81 households(20.7%)which were in one time to four times the ratio of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and 51 debt overburden households which were in excess of 4 times the ratio of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13.0%).

Third,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households in no possession of debt was high in case a householder is a female and spouseless. A household having no spouse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less financial asset, real asset, and retained amounts of total assets and debts than a household having a spouse while a female householder was found to possess significantly less debt than a male householder.

These households are stable in that they are free of debt, but it is unlikely that they can expect the growth aspect in the light of their financial asset or the size of total assets.

Fourth, the study result revealed that the risk-accepting propensity of a debt

overburden household(in excess of 4 times the ratio of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In addition, the retained amounts of financial asset possessed by the household having a high risk-accepting propensity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other groups. Considering these two results, it is thought that a debt overburden household is possessed of exceedingly large debt comparing to other groups, and by guesswork, there might be a strong likelihood that the debt overburden household is possessed of the debt for an investment goal.

Fifth, for risk-free financial assets, a debt overburden( in excess of 4 times the ratio of total debts to financial asset) household was found to possess the smallest amounts in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installment saving, deposit-operated saving & saving insurance, and the higher the intermediate-term debt burden level, each retained amount was found to be small. The retained amounts of risk asse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smaller than other groups, which suggests that a debt overburden household might possess larger debt for investment than risk assets. In addition, the debt overburden household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larger retained amounts related to real estate portfolio in comparison with other group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the fact that the reason for the intermediate-term debt overburden lies in the preparation of real estate.

Sixth, the debt overburden household(in excess of 4 times the ratio of total debts to financial asset) was found to be the biggest in their loan size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succeeded by the order of a household which was in one time to four times the ratio of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and a household which was in less than one time the ratio of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show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hree groups. A debt overburden household seems to have enough security capacity and trustworthy capacity by virtue of plenty of real estate asset and total assets.

Seventh, a debt overburden household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low in the weight of risk-free financial assets but significantly high in the weight of financial investment assets, which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vein of the result that a debt overburden household's risk-accepting propensity was high.

Eight, the study result revealed that it's hard to see a debt overburden household as staying at a stable level even in a long term view with its 76% ratio of total debt to total assets, and its ratio of real assets to total debt was found to be at a stable level in all households. The ratio of real asset to total debt of the household which was in less than one time ratio of total asset to financial asset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 which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ir retained amounts of debt are extremely small whereas the size of their real estate assets is big.

Ninth, the ratio of financial investment asset to total assets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er in the household which was in less than one time the ratio of total debt to financial asset and a debt-free household, but both groups were found to be at a level of insufficient growth with less than 10%.

The ratio of real asset to total assets was found to be at more than 65%, deviating from the optimum level. Particularly, a debt overburden household was found to be very high in the ratio of real asset to total assets, and the household is judged to fall into not a little debt in order to acquire real assets.

Thus, this study thinks that it'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liquidity and growth through the asset portfolio. In case of the ratio of movable assets to total assets, the debt overburden household was found to stay at an extremely low 2% level. Hereupon, this study thinks that it's necessary for the debt overburden household to improve the situation from the aspect of emergency fund index as well, let alone a household's growth.